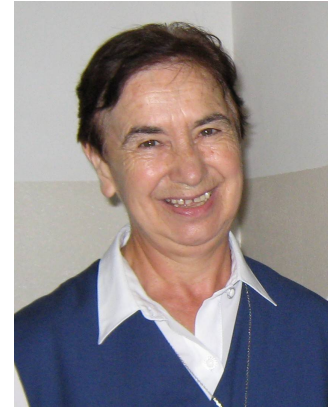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 2026년 4월 21일 오후 6시 50분,
이탈리아 발폴리첼라 네그랄 공동체에서
마리아 루치아, 마리아 테레시나 폰타닐리 수녀가
MARIA LUCIA, Sr M. TERESINA FONTANILI
86세(수도생활 67년)로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4).” 늘 저녁기도의 짧은 독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선한 목자께서 테레시나 수녀님을 당신께 부르셨습니다. 수녀님은 ‘파스토렐라’ 선교사로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의 실천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데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테레시나 수녀님은 1939년 7월 20일 레지오 에밀리아의 파울로 레지아노에서 태어나, 1939년 7월 23일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3년 9월 7일 알바노 라치알레 모원에 입회하였고, 1957년 9월 2일 수련기에 들어갔습니다. 1958년 9월 3일 첫 서원을 하고, 피아첸차의 카데오 공동체로 파견되어 유기서원 기간 전체를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테레시나 수녀님은 깊은 신앙과 기도의 사람으로, 따뜻하고 기쁘며 봉사적이고 관대하며 온순하고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지녔습니다. ‘프리모마에스트로’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며, 모든 필요를 “아기 예수님”께 의탁했는데, 스페인어로 다정하게 “치키(Chiqui)”라고 부르며 어디든 함께 모시고 다녔습니다.

1963년 알바노 라치알레 모원으로 돌아와 9월 3일 종신서원을 하고, 콜롬비아 진출을 준비하며 기쁜 선교 정신으로 지냈습니다.

1964년 1월 27일, 레오니아 보이토 수녀, 파티마 코스텔라 수녀, 다비다 체르보 수녀와 함께 콜롬비아 쿠쿠타에서 수도회의 첫 공동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약 10년간 사목 활동을 하며, 초기의 어려운 시기에는 후원자들을 돌보고,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온 젊은 세대 양성에 헌신하였습니다.

1974 년 이탈리아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으로 돌아와 면학기간을 보내고, 이어서 1976 년 메둘라에서 교육 활동을 했으며, 이후 1982 년까지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지냈습니다. 이후다시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안식년을 보낸 뒤 다시 콜롬비아 선교로 돌아갔습니다.

1983 년 쿠쿠타로 돌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목 활동을 펼쳤으며, 공동체 장상으로서도 모성적 정신으로 봉사하며 빠스또렐라로서, 바오로가족으로서 수도 생활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수녀님은 산 빈첸초 진료소에서의 자선 활동과 부유한 이들을 복음화하여 가난한 이들을 돕게 한 노력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쿠쿠타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렸습니다. 쿠쿠타에서 11 년을 보낸 후, 1994 년 콜롬비아 보고타의 양성-사도직공동체로 파견되었고, 1996 년에는 콜롬비아 메데진으로 1999 년에는 멕시코 선교 진출에 참여하여 2003 년까지 머물렀으며, 그 해에 이탈리아로 영구 귀국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 2004 년부터 네그랄에서 연로한 자매들을 위해 간호 봉사를 하였고, 2011 년 트렌토의 탐보시 공동체로 보내졌고, 2019 년 베로나의 “카사 알베리오네” 공동체에서 지냈습니다. 2022 년 건강 악화로 네그라르 공동체로 옮겨 필요한 돌봄을 받고 병환 기간 동안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테레지나 수녀님을 보살피고 수녀님의 다정함과 미소에 보답해 준 모든 수녀님들과 외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매들과 평신도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수녀님은 인간적이고 영적인 따뜻함이 넘쳤으며, 겸손하고 단순하며 늘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교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며 모두를 돌보았습니다. 모든 일을 기쁨과 열정, 헌신으로 했으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격려하며 기쁨과 친절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서 자비가 흘러나왔으며, 하느님의 섭리에 깊이 의탁했습니다.

수녀님은 어디를 가든 사랑의 흔적을 남겼고, 특히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서 그러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민감함이 뛰어나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과 자선으로 응답했습니다. 수녀님은 사회가 외면한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인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항상 자신이 공부한 간호 지식을 수녀님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사용했고, 작은 것에도 감탄할 줄 알았으며 요리도 잘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콜롬비아 선교의 기초를 세운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으며, 사랑과 헌신, 관대함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선한목자께 대한 큰 사랑이 첫 수녀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라틴 아메리카와 동료 선교 수녀님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뛰었고, 스페인어 한마디에도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이것 또한 수녀님의 위대한 선교사 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수녀님의 사목활동 끝에 ‘카사 알베리오네’에 왔을 때, 수녀님의 관심은 모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항상 곁에 있고, 미소를 짓는 평온한 수녀로서 자신의 삶을 하느님과 형제자매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었습니다. 수녀님의 수도회에 대한 소속감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수녀님의 눈빛과 몸짓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테레시나 수녀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만이 테레시나 수녀와 다비다 수녀가 저를 구해내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아십니다.
그들은 제 삶에 보내주신 두 사도였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영광 안에 받아주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테레시나 수녀님,
온전히 당신의 삶을 봉헌하심에 감사드리며, 수녀님을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파스토렐라 수녀들이 온유한 마음과 사랑으로 불타는 사목적 열정을 얻도록 전구해 주시길
청합니다.

총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2026 년 4 월 21 일, 분두라(호주)
주교, 교회박사 성 안셀모